

투데이 칼럼

코로나19에 대한 방심과 뒷북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발생 이후 지난 9일로 5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확진자가 7313명, 사망자가 50명(9일 기준)에 이르며 며칠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집단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고 좀처럼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진행형이다.

전국의 사망자의 대부분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한 개 이상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던 60~80대 고령 환자로 밝혀졌지만 병이 없던 일반인과 소아 층에도 확진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닌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태의 미생물로서 숙주 없는 무생물에 가까우나 숙주세포만 있으면 계속 복제를 통한 번식을 하며, 전염과정에서 변이를 거쳐 강력한 신종바이러스로 진화하게 된다.

더구나 세균처럼 항생제로 죽일 수도 없고 단지 숙주 밖에서는 알코올이나 소독제로 바이러스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한다.



김 호 응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따라서 손 세척과 마스크 착용이 예방책이자 대안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보면 방심과 뒷북의 연속으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급기야 마스크 대란에 접어들어 9일부터 5부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 이 수준이 과연 세계경제 12위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런 데는 마스크 안 꺼도 되요”, “중국인 입국금지 안한 게 잘못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고 있다”.

“전국적 확산단계 아닌 한 요인에 의한 산발적 초기 단계이다” 등의 말들이 정부책임자라는 사람들의 순간적 위기를 넘기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는 몰라도 그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긴 시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자각해야 훗날 역사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나쁜 할 상태는 아니다. 고위험 군이 될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 등 올바른 현실을 알려주는 질병본부장이나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어서 조금은 위위가 된다.

일부 종교단체에 책임을 돌리며

뒷북행정과 탁상공론 등 정부의 방심의 대가로 온 국민은 지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나 메시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속이거나 혼란에 빠지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발생하자 리셴룽 총리는 정확한 정보 전달, 솔직한 한계 인정, 구체적인 계획 제시, 명확한 행동수칙, 공감과 격려로 사재기도 사라지고 국민을 안정시키며 정상화를 유지하고 있다.

공적몰탈 공급체계 구축도 업체 선정, 생산업체와의 협의와 계약, 생 산일정, 공급망 확보 등 긴급하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허위 발표에 급급하다보니 국민들이 허탕치고 정부불신만 커지는 것이다.

긴급히 마스크 공급업체로 전국망을 가진 복수업체를 선정 5부제로 공급한다니 우선은 다행이다.

위기에서도 국민과의 솔직한 소통이 요구되며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독자제언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경각심을 가져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달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운전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면 정말 위험한 행위이다.

운전 도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 하기 때

문에 사고 위험도가 무려 76%에 이른다고 한다. 도로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거나 DMB 시청하게 될 때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현저히 낮아지며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듯이 운전할 때 한 눈을 판다면 위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처하고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벌점, 벌금과 상관 없이 자신의 목숨 뿐 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앓아갈 수 있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백광훈 고령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해빙기 산행주의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여럿이 모이는 공연장, 영화관 등 실내활동은 줄어들고, 가족 단위로 가까운 산을 찾아 모처럼의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빙기의 산행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이 발생하고, 지반이 약화되어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갑작스레 내리는 비·진눈깨비, 강한 바람은 저체온의 위험에 빠지게 한다.

저체온은 여름철의 산행 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비나 땀에 의해 젖은 옷이 평소보다 240배나 빠르게 열을 빼앗기 때문이다.

저체온은 중심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산행 중 전신 떨림과 호흡불안 등 저체온 증상이

있다면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 체온을 높여주어야 한다. 준비물에 여벌 옷과 응급약품을 추가하고, 나홀로 단독산행을 피하여 예측하지 못한 산악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파스한 햇살에 취해 마신 한 잔의 술은 긴장의 완화와 흐려진 판단력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산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을 오르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체력을 안배한 무리하지 않는 일정,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는 산행으로 모처럼의 여가도 즐기고, 건강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봄철은 산불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와 산행 중 흡연은 반드시 금지하여 산불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김실욱 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설

도시 재생 사업에 욕심을 내야 한다

도시 재생 사업에 계속 욕심을 내야겠다. 도내 빈집들이 1만호에 이른다는데 무작정 두고만 볼 게 아니다. 재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마다 빈집이 11%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시골 지역도 문제지만 도심 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농촌의 빈집 증가율보다 10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빈집을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로만 볼 게 아니다. 도시 재생 자원이란 인식으로 바라보면 재활용 방안이 생길 터이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점이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 평가와 타당성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지역들은 혜택을 입게 될 터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공모에 응한 결과 좋은 성적을 보여줘 도민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제류 잡기의 표본 같은 것이었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사업 기간 동안 있을 몰가 인상을 감안해도 정부가 밝힌 그 50조 원은

거대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 한 해 예산이 8조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전북도는 도내 빈집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야 한다. 도시 재생 사업도 따지고 보면 전북의 제류 찾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물론이고 각 시군 지자체도 도시 재생 사업에 욕심을 내야 한다.지반에도 말했다시피 범접했다. 서울시의 잔치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도 서울은 비대하다. 그 힘센 서울시가 수도권 맞춤형 정책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도시 재생 사업에 욕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말한 바 있다. 특히 전주시를 향해 그런 말을 자주했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도내 다른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도내 빈집 1만호를 제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재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로 지역 발전 성과를 말해야

일자리로 지역 발전 성과를 말해야겠다. 지역 발전의 면모를 일자리로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주문은 미취업자나 비정규직 장인들이라면 절실하게 공감하는 문제이다. 전북도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 우리 전북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보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 부족 때문에 거주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지고보면 저출산 문제도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은 코로나 퇴치가 최고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예전 평상시에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 관심사였다. 전북도가 코로나 퇴치에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은 두루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광역 시도 지자체와 비교하면 전북도는 고마울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쪽에는 다른 광역 시도 지자체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북도는 예전 평상시에 최고 관심사를 일자리 창출 쪽에 두겠다고 반복해 천명한 바 있다. 전북도는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방지에 전국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도 모범 사례를 보여줘야겠다. 우리 지역은 관할은 일자리 창출 사례가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간제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에 들어 보고 싶은 게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작업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 안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전북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지역 성장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지난해 도내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전북도는 기업들의 현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 쪽에도 회망의 근거가 될만한 무언가를 보여줘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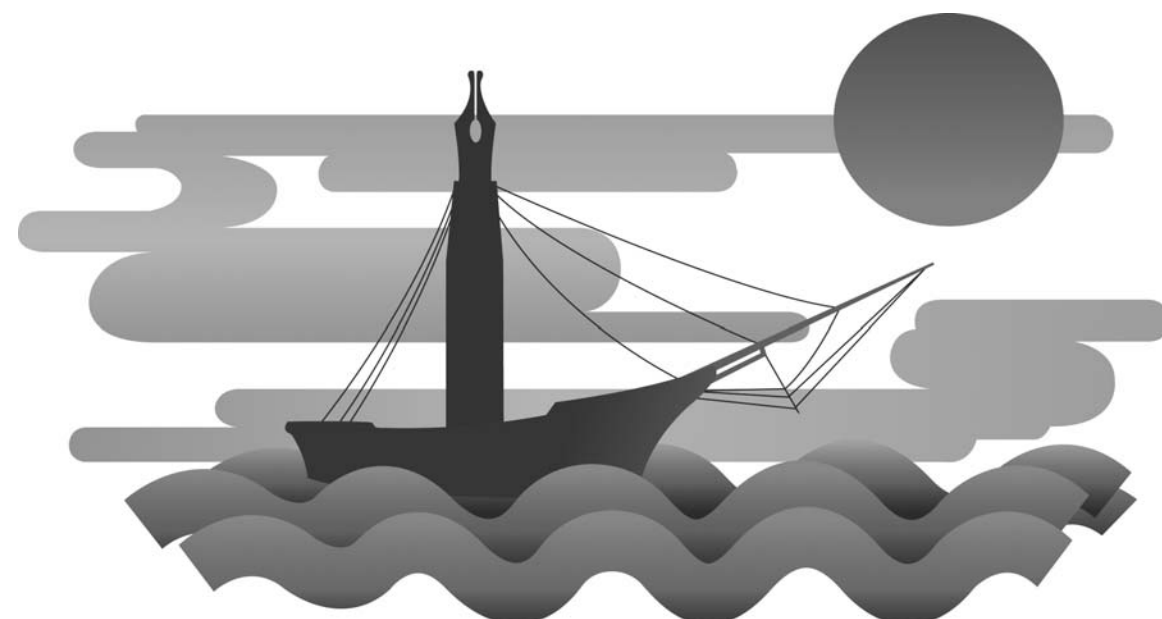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